



PROPOSAL

초저황 경유 공급에 따른  
인센티브 건의

대한석유협회

**환** 정부는 작년 3월부터 최근까지 관련 업계 및 전문가 그룹과의 수차례에 걸친 토론 및 협의과정 등을 통하여 자동차에 의한 이산화질소, 오존, 미세먼지 등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저감을 위한 차기(2006. 1. 1일부터 적용) 자동차연료 환경품질기준 강화계획(안)을 검토하였으며, 조만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으로 있음.

상기 과정에서 폐 협회는 당시 정유업계가 경영실적 악화(과거 2년간 약 1조원의 순손실 기록)로 인해 신규 시설투자가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귀부와 업계 간 입장차이를 줄이고, 정유업계 단일 검토의견(안)을 최종 작성하여 귀부에 제출(2002.12.4일)하였으며, 아울러 초저황유 생산 관련 시설투자를 위한 장기저리용자 자금지원 협조 및 외국의 사례와 같이 초저황유 공급에 대한 Tax Incentive 및 보조금 제도의 시행을 요청하였음.

\* 특히, 경유 황함량 기준이 대폭 강화됨(현재 430ppm→30ppm)에 따라 정유업계는 약 1조원 이상의 막대한 시설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이에 폐 협회는 경유 황함량 기준을 포함한 향후 강화되는 차기 자동차연료 환경품질기준을 충족시키는데 따른 정유업계의 부담을 일부 완화 하고, 향후 경유 승용차 국내시판 허용에 따른 대기오염 저감 보완대책을 수립하는 차원에서 환경부에 아래와 같은 지원을 재차 요청함.

**첫째,** 초저황경유 공급에 대한 Tax Incentive 및 보조금제도의 시행

- \* 차기 황함량 기준이 강화되기 이전에 초저황 경유(50ppm 이하) 조기공급 유도 및 경유차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저감을 위한 Tax Incentive 및 보조금 제도의 시행
- \* 현재 유럽, 홍콩 등에서는 Tax Incentive제도를 도입하여 업체가 자발적으로 50ppm이하의 초저황경유를 공급하도록 유도하고 있음

**둘째,** 저황유 생산시설 등 환경품질 개선관련 시설투자에 대한 장기저리용자 자금지원 및 투자세액 감면 확대 협조

- \* 정유업계는 2000, 2001년 2년간 약 1조원의 손실을 기록하여 재정이 매우 악화되어 있는 상황임.
- \* 따라서 대규모 시설투자를 위한 자금의 자체조달은 물론 금융권을 통한 조달도 매우 어려운 형편이므로, 저황유 생산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장기 저리 용자 등 정부지원이 반드시 필요함.
- \* 초저황연료유의 공급은 저공해연료유 공급 정책 측면에서 CNG 보급에 못지 않은 획기적인 변화이며 오염물질 저감효과는 CNG 또는 기타 연료에 비해 매우 크므로 시설투자에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형평에도 맞을 것임.

**셋째,** 환경오염방지물품(연료의 탈황, 탈금속 촉매 등을 포함)에 대한 수입관세 감면 확대 협조

- \* 특히, 촉매는 연료의 탈황, 탈금속 등을 하는데 있어서 핵심적인 기능을 하는 고가의 물품으로서 일반적으로 1~2년 이상 장기간 사용되므로 수입관세 감면대상에 필히 포함되어야 함. ㉠